



#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4,883원 인상  
임금 안정성 쟁취!  
공민권 행사 보장

제09호 / '17.7.6(목)

발행처: 교육선전부 | 발행인: 김정태 |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 전화: 043-236-5077 | http://dc.kmmu.kr

## 3주만에 교섭 재개!

냉각기 후 첫 교섭에서 축소교섭까지 2시간 넘게 진행

### 벌써 7월, 교섭 진전 위해 노력해야

지부교섭이 결렬된 후 3주만에 다시 열렸다. 지부는 그동안 휴가 전 타결을 위해 7월 3주차까지는 의견을 좁히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벌써 7월 1주차인 만큼 교섭이 빠르게 진전돼야 한다. 3주 만에 재개된 교섭에서 사측은 제시안을 내놨다. 2차 제시안 보다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은 아니었다.

#### [ 3차 제시안 ]

##### 1. 2017년 임금인상 : 추후제시

##### 2. 임금안정성 확보를 위한 요구안

① 회사는 공상, 산재 복직 후 해당 질병 치료 목적의 외부 병원 진료 조퇴에 대해 년4시간에 한하여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단,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진료가 가능한 조퇴는 제외한다.

② 각 사업장별 단체협약, 노사합의 등이 상기 사항보다 상회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3. 공민권 행사 보장 요구안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에 대해 임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

(가) 병역법에 따라 근무시간 중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의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나)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에 공적인 사유로 증인, 참고인으로 출두할 때

(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보궐선거에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근무로 인해 투표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투표시간을 보장한다.

(르) 천재, 지변의 사유로 순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단, 회사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함.

②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및 민방위 소집에 응할 때는 각 사별 근태처리 규정에 따라 익일 유급, 출근 연기 등을 적용한다. 단, 개인사정으로 정규 훈련에 불참하여 발생한 보충훈련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병역법에 의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는 해당일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④ 각 사업장별 단체협약, 노사합의 등이 상기 사항보다 상회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지부요구안 풀려야 임금인상 논의한다

노사 양측은 진전을 위해 교섭위원 3명으로 구성된 축소교섭을 진행했다. 2시간여 동안 양측은 많은 의견을 나눴다. 여전히 입장 차이는 컸지만,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축소교섭에서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차기 교섭에서는 훨씬 더 진전된 나와야 한다. 사측이 교섭 타결에 의지가 있다면 차기 교섭에서는 지부 요구안이 풀려야 한다. 지회별 임금 인상안까지 다루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올해 임단협의 향방은 차기 교섭에서 보여줄 사측의 태도에 달려있다.

## 11차 교섭 속기록

# 축소교섭 가동해서 의견차이 좁히자

**노 :** 정말 오랜만이다. 냉각기를 갖자고 얘기했지만, 지부교섭을 7월 3주차에 마무리 하지는 입장은 변함없다. 오늘 제시안 준비했으면 내달라. 양해를 한다면 실무교섭을 가동해서라도 의견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논의했으면 한다.

**사 :** 엇그제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이걸 놓고 국가별 대응이 참 다양하다. 사드문제 하나 가지고도 각 국가별 입장이 다른데,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며 손잡고 한목소리를 내는걸 보니 자국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는 정도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말을 드리는 것은 회사도 생존을 위해서는 유사한 부분이 있다. 현대차 중국 매출이 상반기 지나면서 60% 빠졌다. 대부분 지회가 자동차 업종이라 심각하게 받아야 한다. 처음에는 사드 문제라고도 판단했는데, 깊숙이 보면 중국 내에서 제품 포지셔닝이 잘못됐던 것 같다. 품질만 좋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시장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이 아니면 안된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차 TF가 구성됐다. 그만큼 심각하다.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3가지 요인이 있다. 재료비, 인건비, 경비다. 회사로서는 인건비이고, 종업원에게는 임금이다. 임금은 소득 문제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회사도 임금문제를 매년 다루고 있다. 인건비 측면에서 보면 낮추면 좋겠지만 종업원 사기를 고려하면 고민이 필요하다. 교섭을 잘 마무리한 경험이 있으니 좋은 안을 내서 같이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사실 노사 패러다임도 바뀔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경영상황

을 우리만 고민하는게 아니라 조합과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생존할지 고민해야 한다. 오늘 제시안을 준비했는데 미흡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봐달라. 의견을 좁혀봤으면 좋겠다.

**노 :** 안 준비했다니 받아보겠다.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오늘 실무교섭을 가동할 수 있나?

**사 :** 그렇다.

**노 :** 제시안 받고 정회 요청하겠다.

<정회>

<축소교섭 진행>

**노 :** 서로 실무교섭에서 의견 교환은 많이 한 것 같다. 차기 일정 잡고 오늘은 마무리하자. 차기도 한온시스템에서 하는 게 어떤가? 시간은 좀 더 당겨서 진행했으면 한다.

**사 :** 우린 괜찮다.

**사회 :** 차기 교섭은 7월 13일(목) 14시 한온시스템에서 진행하겠다.